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40호 [루게식23457호] 주제100 (2011)년 5월 20일 (금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필승의 신념안고 총진격 앞으로!

사설

4대선행부문에서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이자

올해에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에서 대고조전투의 선두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힘써 높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4대선행부문은 인민경제의 기관차이며 인민생활향상의 관건적고리이다.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모든 대고조전투들에서 원료와 연료, 기본자재와 수송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가고있다. 올해에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자 하여도 선행부문에 경공업, 농업부문에 필요한 전기와 강재, 석탄을 제때에 원만히 대주어야 한다.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의 활력자 오늘날의 대고조전투속도이다.

지금 석탄, 전력, 금속공업과 철도 운수부문 로동계급의 기세는 대단히 좋다.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부닥치는 난관을 과감히 뚫고 1. 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한데 이어 2. 4분기에도 변함없는 실적을 올리고있다. 이것은 경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도록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인민생활향상대고조의 불길이 되어 전국의 들과마을을 열어나가는 선행부문 로동계급의 위훈은 인민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오늘날의 기세를 늦추지 말고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강령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뜻있는 2012년을 향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4대선행부문의 활력자라는 편지를 들려시며 이 부문 로동계급이 계속 대고조의 앞장에서 내달리도록 더 큰 사랑과 믿음을

을 안겨주고계신다. 150일전투기간 강선, 황철, 안주 등 각지의 로동혁신자들을 5. 1절경축 축하모임에 불러 주신분도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며 주체철생산체제를 완성한 위훈자들을 시대의 영웅, 공로자로 높이 내세워주신분도 우리 장군님이시다.

4대선행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위대한 장군님의 신임과 기대를 심장깊이 새기고 대고조전투의 선봉에서 질풍같이 전진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선행부문의 획기적발전의 길에 쌓아올린 선봉하는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생산들과 과 중산공업의 혁혁한 성과로 빛내여야 한다. 지하마당과 송전탑, 용해장 그 어디에서 끊임없는 강행군길을 걸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만을 그리며 인민경제의 원료, 연료, 전력, 수송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더욱 분발하여야 한다.

우리 당이 제시한 4대선행부문의 전투목표들을 기어이 점령하여야 한다.

석탄은 주체공업의 식량이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탄광들의 능력확장공사를 적극 다그치고 고속도굴진운동을 힘있게 벌려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주체비료, 주체심유생산과 화력발전소들의 만가동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모든 탄광들에서 기본굴진과 준비굴진에 의한 확보탄량을 선형시키고 월평균 석탄생산량을 부쩍 끌어올려야 한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개선하고 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전력생산은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 송배전체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급전체제와 방법을 혁신하여 생산된 전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최첨발전소, 핵두산선공정발전소를 비롯한 대규모발전소와 중형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금속공업은 경제강국건설의 밑뿌리이다. 강재가 많아야 기계설비생산도 기본건설도 힘있게 내밀 수 있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우리 리도체철생산체제에 의거하여 생산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현존야금설비들에 대한 기술개선과 보수정비사업을 다그쳐 강철생산능력을 훨씬 끌어올려야 한다. 선철과 강철, 압연강재 생산을 정상화하면서 전반적생산공정의 현대화, CNC화를 힘있게 추진시켜야 한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철도의 중량화, 현대화를 다그치면서 화물수송능력을 높이며 나라의 전반적인 철길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투쟁을 완강하게 벌려나가야 한다. 철도에서 군대와 같은 강한 규율을 세우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화력발전소용석탄과 금속, 화학공업부문의 원료, 연료를 비롯하여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선행부문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국가경제지도기관들과 경제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비상히 높여야 한다.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경제지도기관들과 일군들은 당정책과 과학적인 경제기술과정에 기초하여 선행부문을 지켜세우기 위한 경제작전, 계획화사업을 현실성있게 바로 하고 경제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어야 한다. 일단 작전하고 조직한 다음에는 그 집행을 강하게 장악추진하여 어김없이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적으로 선행부문을 향상시키는 생산기술적면과 협동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잘 맞물려주며 경제조직사업을 진감있게 진행하여 이 부문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석탄, 전력,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을 담당하는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경제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지는 확고한 립장에서 모든 사업을 주동적으로, 진취적으로 조직 전개해나가야 한다. 과업이 무겁고 어려울수록 필승의 신심과 락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혁신적인 안목으로 작전과 지휘를 더욱 대담하게 해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함께 당이 내세운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방도를 찾으며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함으로써 맡겨진 생산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해나가야 한다. 선행부문을 돕는것은 곧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석탄공업부문을 비롯한 선행부문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로동보조물자들을 책임적으로 대주며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앞세워나갈데 대한 당의 방침을 당적으로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석탄, 전력,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의 당조직들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기들의 어깨에 경제강국건설의 운명을 놓여있다는 자각을 안고 중산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행정경제일군들이 경제조직과 지휘를 대담하게, 폐기있게 해가도록 적극 뒤받침해주어야 한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남용청년화학생기업소들의 모범을 적극 따라배워 생산의 주인인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의 생활에 선자적인 관심을 돌리고 생활상문제를 책임적으로 풀어서 그들의 생산열의를 최대한 높여주어야 한다.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기대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며 기세총계 전진

나라의 굵직한 석탄 생산자인 평안남도에서 석탄생산의 불길이 세차게 타고있었다.

공동사설의 전투적업무를 받들고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와 안주, 북창, 두창, 덕천,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며 석탄생산에 더 큰 박차를 가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석탄생산을 높이는것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평안남도당위원회 일군들은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에서 석탄생산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탄광들에 나가 조직적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나라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도안의 여러 탄광들에 달려 나간 도당위원회 일군들은 각광장에 들어가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해당 부문들과의 연계면에서 탄광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화석산업으로 탄부들의 생활의 질을 적극 높여주고있다.

다. 이와 함께 기동출생동들을 발동하여 탄광에서 경제전투의 북소리가 더 높이 울리도록 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답을 관철해 펼쳐나신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의 탄부들은 예비제탄장을 넉넉히 마련하여 석탄생산은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석탄생산량을 훨씬 늘리고있다. 특히 신리, 연풍, 립석, 청남탄광의 탄부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필요한 자재와 부수물들을 자력으로 마련하면서 매일 계획보다 더 많은 석탄을 캐내고있다.

1. 4분기 석탄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한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4월에 이어 5월에 들어와서도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줄기찬 투쟁을 벌이며 변함없는 열정을 일깨워나가고있다. 이곳 책임일군들은 들끓는 각광장에 들어가 오늘날의 대고조전투에서 석탄생산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탄광들에 나가 조직적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2. 8직동청년탄광, 명대탄광, 천성청년탄광, 신창청년탄광에서는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탄광연합기업소의 일군들이 힘있게 벌리고있는 화석산업사업으로 아래단위의 모든 탄광들에서는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탄광연합기업소들의 일군들과 탄부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석탄생산성과가 더욱 확대되고있다. 특파기자 리 혁 철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답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생산물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평양방직공장에서— 본사기자 김 홍 훈 찍음

평안 북도의 협동농장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시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기본은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푸는것이이며 농업전선은 모든 혁명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전선의 하나입니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평안북도의 농업근로자들이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종합원 자료에 의하면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지원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도안의 전반적인 협동농장들에서 기면면적의 강병이영양단지모 육겨심기를 계속되고 5월 15일부터 모내기 시작되었다.

도, 시, 군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가두민민들의 주민들도 농사를 함께 책임진 주인된 자각을 안고 들끓는 협동농장에 달려나가 모내기전투를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공동사업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농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기 위한 조직적

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벼모기르기, 모내기를 비롯한 다양한 불철영농전투가 힘있게 벌어지는데 맞게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모든 선진선동력량을 들끓는 전투현장에 집중시키고 화석산업전투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촌정리위원회에서는 시, 군을 통해 강병이심기를 성과적으로 끝내도록 떠들어준데 이어 지난 5월 10일 파산군 판상협동농장에서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농장일군들과 기술자들이 모내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요구를 잘 알고 기술지도를 잘하게 하였다. 신의주시에서는 강병이영양단지모 육겨심기를 성과적으로 계속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철의 령도자육이 어려워지는 석하협동농장에서 모내기와 관련한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한데 이어 일군들이 시안의 협동농장에 나가 모내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내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리게 하였다.

통천군 장산, 신암, 산두협동농장과 태천군 은홍협동농장을 비롯한 도안의 령도업적단위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올해 알곡생산에서 통창혼을 부르겠다는 열의를 안고 불리한 자연기후적조건에서도

모내기전투를 벌이고있다. 시, 군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가두민민들의 주민들도 농사를 함께 책임진 주인된 자각을 안고 들끓는 협동농장에 달려나가 모내기전투를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공동사업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농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기 위한 조직적

고상한 정신도덕적 품모의 발현

많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 대고조전투장으로 자원진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수령은 인민을 믿고 끝없이 사랑하며 인민은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높이 받들어나가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일심단결의 참모습입니다.》

종합원 자료에 의하면 인민생활대고조의 해인 지난해에 올래에 수많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자원진출하였다. 상업성 아예단위 로동자 김정남동무는 우리 인민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포전길을 걸으신 어버이수령님의 유혼과 우리나라를 쌀이 넘쳐나는 나라, 쌀이 남아돌아가는 나라로 만드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가족과 함께 덕성군으로 자원진출하였다.

인민들이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기어이 해결하려는 당의 뜻을 심장에 새긴 많은 청년들도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인 농업전선으로 자원진출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을 졸업한 정수림동무는 당의 원대한 강성대국건설사업을 충직하게 받들 일심단결 사수구역 리현남새싹협동농장으로 자원진출하였다.

평양장원중학교와 평양강안중학교 졸업생들이 김홍순, 리보담의 형제 10여명도 사회주의농촌으로 자원진출하였다. 친부모도 출수 없는 뜨거운 사랑으로 마음껏 배우며 자라도록 보살펴준 당의 고마운 은덕에 보답할 한마음으로 그들은 배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사적이 깃들여있는 영광의 땅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으로 자원진출하였다.

평강도안의 청년들도 당의 원대한 구상을 꽃피우는데 길에서 청춘시절을 값있게 보낸 결의안고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들에 자원진출하였다.

이밖에도 평양시, 함경북도,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각지의 수많은 녀맹원들이 창조와 로동으로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할 결심을 안고 대고조열풍이 휘몰아치는 공장, 기업소들에 진출하였다.

많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정한 수도와 일터, 나서자란 고학을 떠나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갈을 다투어 달려나가고있는 자량한 헌신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쭉같이 뭉친 우리의 일심단결을 보여주는 긍지높은 화폭으로 된다. 본사기자 리 경 일

지휘부에서는 책임일군들이 앞장서서 수위관측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물량측정결과를 시간별, 날자별로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면서 희천 2호발전소 발전기실건축공사와 설비조립전투 등을 기동적으로 조직지휘해나감으로 발전소 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있다.

군인건설자들과 발전소건설에 펼쳐나신 일군들, 전투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희천 2호발전소의 발전설비들이 동음을 울릴 환희의 그 시각은 하루하루 앞당겨지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류 기 품

모내기성과 계속 확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시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기본은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푸는것이이며 농업전선은 모든 혁명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전선의 하나입니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평안북도의 농업근로자들이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종합원 자료에 의하면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지원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도안의 전반적인 협동농장들에서 기면면적의 강병이영양단지모 육겨심기를 계속되고 5월 15일부터 모내기 시작되었다.

도, 시, 군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가두민민들의 주민들도 농사를 함께 책임진 주인된 자각을 안고 들끓는 협동농장에 달려나가 모내기전투를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공동사업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농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기 위한 조직적

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벼모기르기, 모내기를 비롯한 다양한 불철영농전투가 힘있게 벌어지는데 맞게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모든 선진선동력량을 들끓는 전투현장에 집중시키고 화석산업전투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촌정리위원회에서는 시, 군을 통해 강병이심기를 성과적으로 끝내도록 떠들어준데 이어 지난 5월 10일 파산군 판상협동농장에서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농장일군들과 기술자들이 모내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요구를 잘 알고 기술지도를 잘하게 하였다. 신의주시에서는 강병이영양단지모 육겨심기를 성과적으로 계속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철의 령도자육이 어려워지는 석하협동농장에서 모내기와 관련한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한데 이어 일군들이 시안의 협동농장에 나가 모내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내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리게 하였다.

통천군 장산, 신암, 산두협동농장과 태천군 은홍협동농장을 비롯한 도안의 령도업적단위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올해 알곡생산에서 통창혼을 부르겠다는 열의를 안고 불리한 자연기후적조건에서도

모내기전투를 벌이고있다. 시, 군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가두민민들의 주민들도 농사를 함께 책임진 주인된 자각을 안고 들끓는 협동농장에 달려나가 모내기전투를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공동사업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농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기 위한 조직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희천발전소건설을 다그쳐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까지 무조건 끝내야 합니다.》

지난 4월 9일 가배수로밀폐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물잡이를 시작한 희천연계의 수위가 날마다 높아지고있다. 종합원 자료에 의하면 연제의 가배수로를 밀폐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연제의 수위는 40cm높이에 도달하였다. 이것은 앞으로의 수위변화상태를 잘 가능하게 해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희천발전소건설을 다그쳐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까지 무조건 끝내야 합니다.》

희천 2호발전소 건설장에서 연제공사장 물높이에 해당하는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수위관측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물량측정결과를 시간별, 날자별로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면서 희천 2호발전소 발전기실건축공사와 설비조립전투 등을 기동적으로 조직지휘해나감으로 발전소 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있다.

언제의 수위가 날로 높아진다

희천 2호발전소 건설장에서

연제공사장 물높이에 해당하는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수위관측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물량측정결과를 시간별, 날자별로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면서 희천 2호발전소 발전기실건축공사와 설비조립전투 등을 기동적으로 조직지휘해나감으로 발전소 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있다.

연제공사장 물높이에 해당하는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수위관측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물량측정결과를 시간별, 날자별로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면서 희천 2호발전소 발전기실건축공사와 설비조립전투 등을 기동적으로 조직지휘해나감으로 발전소 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있다.

연제공사장 물높이에 해당하는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수위관측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물량측정결과를 시간별, 날자별로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면서 희천 2호발전소 발전기실건축공사와 설비조립전투 등을 기동적으로 조직지휘해나감으로 발전소 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있다.

연제공사장 물높이에 해당하는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수위관측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물량측정결과를 시간별, 날자별로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면서 희천 2호발전소 발전기실건축공사와 설비조립전투 등을 기동적으로 조직지휘해나감으로 발전소 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있다.

연제공사장 물높이에 해당하는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수위관측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물량측정결과를 시간별, 날자별로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면서 희천 2호발전소 발전기실건축공사와 설비조립전투 등을 기동적으로 조직지휘해나감으로 발전소 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있다.

연제공사장 물높이에 해당하는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수위관측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물량측정결과를 시간별, 날자별로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면서 희천 2호발전소 발전기실건축공사와 설비조립전투 등을 기동적으로 조직지휘해나감으로 발전소 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있다.

연제공사장 물높이에 해당하는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수위관측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물량측정결과를 시간별, 날자별로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면서 희천 2호발전소 발전기실건축공사와 설비조립전투 등을 기동적으로 조직지휘해나감으로 발전소 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있다.

연제공사장 물높이에 해당하는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수위관측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물량측정결과를 시간별, 날자별로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면서 희천 2호발전소 발전기실건축공사와 설비조립전투 등을 기동적으로 조직지휘해나감으로 발전소 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있다.

연제공사장 물높이에 해당하는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수위관측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물량측정결과를 시간별, 날자별로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면서 희천 2호발전소 발전기실건축공사와 설비조립전투 등을 기동적으로 조직지휘해나감으로 발전소 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있다.

연제공사장 물높이에 해당하는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수위관측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물량측정결과를 시간별, 날자별로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면서 희천 2호발전소 발전기실건축공사와 설비조립전투 등을 기동적으로 조직지휘해나감으로 발전소 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있다.

연제공사장 물높이에 해당하는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수위관측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물량측정결과를 시간별, 날자별로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면서 희천 2호발전소 발전기실건축공사와 설비조립전투 등을 기동적으로 조직지휘해나감으로 발전소 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있다.

연제공사장 물높이에 해당하는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수위관측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물량측정결과를 시간별, 날자별로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면서 희천 2호발전소 발전기실건축공사와 설비조립전투 등을 기동적으로 조직지휘해나감으로 발전소 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있다.

연제공사장 물높이에 해당하는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수위관측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물량측정결과를 시간별, 날자별로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면서 희천 2호발전소 발전기실건축공사와 설비조립전투 등을 기동적으로 조직지휘해나감으로 발전소 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있다.

연제공사장 물높이에 해당하는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수위관측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물량측정결과를 시간별, 날자별로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면서 희천 2호발전소 발전기실건축공사와 설비조립전투 등을 기동적으로 조직지휘해나감으로 발전소 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있다.

연제공사장 물높이에 해당하는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수위관측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물량측정결과를 시간별, 날자별로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면서 희천 2호발전소 발전기실건축공사와 설비조립전투 등을 기동적으로 조직지휘해나감으로 발전소 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있다.

연제공사장 물높이에 해당하는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수위관측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물량측정결과를 시간별, 날자별로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면서 희천 2호발전소 발전기실건축공사와 설비조립전투 등을 기동적으로 조직지휘해나감으로 발전소 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있다.

연제공사장 물높이에 해당하는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수위관측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물량측정결과를 시간별, 날자별로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면서 희천 2호발전소 발전기실건축공사와 설비조립전투 등을 기동적으로 조직지휘해나감으로 발전소 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있다.

연제공사장 물높이에 해당하는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수위관측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물량측정결과를 시간별, 날자별로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면서 희천 2호발전소 발전기실건축공사와 설비조립전투 등을 기동적으로 조직지휘해나감으로 발전소 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있다.

연제공사장 물높이에 해당하는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수위관측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물량측정결과를 시간별, 날자별로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면서 희천 2호발전소 발전기실건축공사와 설비조립전투 등을 기동적으로 조직지휘해나감으로 발전소 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있다.

연제공사장 물높이에 해당하는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수위관측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물량측정결과를 시간별, 날자별로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면서 희천 2호발전소 발전기실건축공사와 설비조립전투 등을 기동적으로 조직지휘해나감으로 발전소 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있다.

연제공사장 물높이에 해당하는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수위관측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물량측정결과를 시간별, 날자별로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면서 희천 2호발전소 발전기실건축공사와 설비조립전투 등을 기동적으로 조직지휘해나감으로 발전소 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있다.

연제공사장 물높이에 해당하는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수위관측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물량측정결과를 시간별, 날자별로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면서 희천 2호발전소 발전기실건축공사와 설비조립전투 등을 기동적으로 조직지휘해나감으로 발전소 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있다.



특파기자 송 창 운

혁명승리를 위한 대중전취의 길을 밝힌 봄명월구회의

조선혁명의 성스러운 력사는 백두산위인들을 모sier 승리와 영광을 펼쳐온 자랑스러운 년대이다. 혁명에 나중이 막아나고 시련이 겹칠수록 무비의 담력과 배짱, 탁월한 지력으로 뿔고헤치며 년대와 세기를 승리의 력사로 찬란히 수놓아오신 위대한 수령님, 존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헤치며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그 자랑찬 력사의 갈래에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있지 못하며 갑곶이 추여하는 력사적인 봄명월구회의도 있다.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에 따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항일무장투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대중적지반을 축성하는 사업에 중대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 실천을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되새기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우리 인민의 수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온 세계가 공인하는 인류의 태양이시니다.》** 어느덧 8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돌이켜보면 봄명월구회의를 전후한 1930년대 초엽 우리 혁명정세는 참으로 엄숙하여 령도자 5, 30 폭동과 8. 1 폭동을 계기로 시작된 백색테러의 회오리바람은 1931년에 들어서면서 더 우습게 만주대지를 휩쓸었다. 적들은 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이 여러해동안 품들어 키워온 혁명력량을 송두리채 없애버리려고 도처에서 벌이는 되여 날뛰면서 독압소동을 벌였다. 그리하여 간도의 혁명조직들은 거의다 파괴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새 세대 혁명가들이 두만강연안으로 나가면서 복구해놓았던 조직들도 적지 않은 손실을 당하였다. 더우기 심중중대는 좌경모험주의자들이 일으킨 두차례의 폭동후과로 하여 인민들이 혁명가들을 불신

하고 멀리하는것이였다. 인민을 위해 싸우는 투사들이 자기들 위해 싸우는 투사들이 자기들 위해 싸우면 인민에게서 버림을 받는다. 그러다 더 슬픈 일이지만 하루라도 인민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인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 혁명가의 생명은 산 목숨이라고 말할 수 없는것이였다. 이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주체의 원리를 발견하시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는것을 혁명신조로 삼으신 우리 수령님이시다. 화기에 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하나의 조직된 력량으로 묶어세워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쌓는것을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으로 보셨고 이 사업을 항일무장투쟁준비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하루빨리 5, 30 폭동의 후과를 추화하자. 그리고 광범한 대중을 하나의 정치력량으로 묶어세울 수 있는 올바른 조직로선을 제기하고 그 로선에 세 세대 혁명가들을 무장시키자! 이것이 바로 우리 수령님의 그때의 결심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만지방으로 활동무대를 옮기시고 혁명적강한 그대 인민들을 묶어세우기 위한 투쟁을 파강히 벌려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첫 사업으로 조선혁명군 대원들과 혁명조직핵심성원들을 위한 문화강습을 조직하시였다. 강습에서는 무장투쟁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기 위한 과업과 실천방도를, 기동장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지도도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함께 분산된 혁명군중을 조직적으로 결속하는 문제를 취급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안도, 연길, 화성, 주성, 온성 일대 혁명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시였다. 적들의 악착스러운 추적속에서 폐식을 빈치시키며 파괴된 혁명조직을 복구시키며 파괴된 혁명조직을 복구하기 위하여 우리 수령님께서 바치신 헌신의 로고를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랴. 얼마나 시련에 찬 나날이었으면 우리 수령님께서 잊지 못할 그대를 감회깊이 추억하시며 회멸된 강낭죽에 갖김치를 먹으면서 밤이면 찬 바람이 스며드는 남의 집 옷방에 목침을 베고 누워 시장기와 싸우던 때가 바로 이 시기였다고, 그 당시 우리를 가장 괴롭혔던 고통중의 하나가 다름아닌 시장기였다고 회고록에 쓰시였는가. 온갖 시련과 고통을 불라는 혁명열로 이겨내서적극적인 활동으로 간도와 두만강연안 특육일대의 실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마침내 주제 20 (1931)년 5월 20일 당 및 동포간부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여기에는 당, 공청간부들과 조선혁명군 성원들, 지하공작원들이 참가하였다. 간도지방의 새 세대 혁명가들도 이 회의에 거의 다 참가하였다. 오늘날 우리의 눈앞에는 《좌경적모험주의로선을 폐색하고 혁명적조직로선을贯彻하자》라는 연설을 하시며 회의참가자들의 가슴속에 혁명의 불길을 세계에 퍼져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기록하신 모습이 숨없이 안겨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우리가 손에 무장을 들지 않고서는 발흥까지 무장한 일제를 타승할수 없다. 오직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달성할수 없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도 없이 지금 당장 무장투쟁을 전개할수 없다. 혁명투쟁을 막론하고 혁명력량의 충분한 준비가 없는 투쟁에서 승리를 달성하지 못하는 법이다. 오직 혁명력량의 총적문제들과 함께 분산된 혁명군중을 조직적으로 결속하는 문제를 취급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안도, 연길, 화성, 주성, 온성 일대 혁명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시였다. 적들의 악착스러운 추적속에서 폐식을 빈치시키며 파괴된 혁명조직을 복구시키기 위하여 우리 수령님께서 바치신 헌신의 로고를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랴. 얼마나 시련에 찬 나날이었으면 우리 수령님께서 잊지 못할 그대를 감회깊이 추억하시며 회멸된 강낭죽에 갖김치를 먹으면서 밤이면 찬 바람이 스며드는 남의 집 옷방에 목침을 베고 누워 시장기와 싸우던 때가 바로 이 시기였다고, 그 당시 우리를 가장 괴롭혔던 고통중의 하나가 다름아닌 시장기였다고 회고록에 쓰시였는가. 오늘날 우리의 눈앞에는 《좌경적모험주의로선을 폐색하고 혁명적조직로선을贯彻하자》라는 연설을 하시며 회의참가자들의 가슴속에 혁명의 불길을 세계에 퍼져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기록하신 모습이 숨없이 안겨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우리가 손에 무장을 들지 않고서는 발흥까지 무장한 일제를 타승할수 없다. 오직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달성할수 없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도 없이 지금 당장 무장투쟁을 전개할수 없다. 혁명투쟁을 막론하고 혁명력량의 충분한 준비가 없는 투쟁에서 승리를 달성하지 못하는 법이다. 오직 혁명력량의 총적문제들과 함께 분산된 혁명군중을 조직적으로 결속하는 문제를 취급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안도, 연길, 화성, 주성, 온성 일대 혁명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시였다. 적들의 악착스러운 추적속에서 폐식을 빈치시키며 파괴된 혁명조직을 복구시키기 위하여 우리 수령님께서 바치신 헌신의 로고를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랴. 얼마나 시련에 찬 나날이었으면 우리 수령님께서 잊지 못할 그대를 감회깊이 추억하시며 회멸된 강낭죽에 갖김치를 먹으면서 밤이면 찬 바람이 스며드는 남의 집 옷방에 목침을 베고 누워 시장기와 싸우던 때가 바로 이 시기였다고, 그 당시 우리를 가장 괴롭혔던 고통중의 하나가 다름아닌 시장기였다고 회고록에 쓰시였는가. 오늘날 우리의 눈앞에는 《좌경적모험주의로선을 폐색하고 혁명적조직로선을贯彻하자》라는 연설을 하시며 회의참가자들의 가슴속에 혁명의 불길을 세계에 퍼져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기록하신 모습이 숨없이 안겨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우리가 손에 무장을 들지 않고서는 발흥까지 무장한 일제를 타승할수 없다. 오직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달성할수 없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도 없이 지금 당장 무장투쟁을 전개할수 없다. 혁명투쟁을 막론하고 혁명력량의 충분한 준비가 없는 투쟁에서 승리를 달성하지 못하는 법이다. 오직 혁명력량의 총적문제들과 함께 분산된 혁명군중을 조직적으로 결속하는 문제를 취급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안도, 연길, 화성, 주성, 온성 일대 혁명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시였다. 적들의 악착스러운 추적속에서 폐식을 빈치시키며 파괴된 혁명조직을 복구시키기 위하여 우리 수령님께서 바치신 헌신의 로고를 우리 어찌

혁명일화

장군님과 쌍둥이자매로동자

지난 1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 기계공장을 찾으시었을 때에 있는 일이다. 그곳 로동계급이 새로 만들어진 현대적인 기계들의 구조와 성능을 알아보고 생산현장에 대하여서도 들어오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참으로 만족해하시였다. 당의 결정지시라면 오직 검사관들에게 모르는 순박하고 성실한 로동계급이 미더우이 거들거들 분배 넘치는 평가를 안겨주시는 어버이장군님의 인품에 이끌려 공장일군들은 저도 모르게 성수가 있다. 아버지의 칭찬에 신이 난 자식들마냥 공장들의 크고작은 자랑을 떠나간 한 일군이 22년전에 장군님께서 만나 주시었던 쌍둥이자매가 지금도 공장에서 일하고있다고 보고드렸을 때였다.

순간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색은 더없는 기쁨으로 환해지시였다. **《그 쌍둥이자매가 지금까지 일하고있습니까? 어서 그들을 만나봅시다.》** 공장일군들은 물론 수행한 일군들도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수십년전 생산현장에서 잠깐 보시었던 그들을 아직까지도 잊지 않고계시다니!) 그날은 주제 78 (1989)년 11월 어느날이었다. 그때 공장을 찾으시었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현장에서 구수함을 흘리며 일하고있는 두 처녀를 보게 되시였다. 그들이 쌍둥이라는것을 첫눈에 알아본 장군님께서서는 대견하신훘 그들의 일출씨를 이윽로 룽 지켜보시였다. 언약한 처녀의 몸으로 남자들도 어려워하는 일을 스스로 맡아하는 그 마음이 장하여 더욱 아끼고 위해주고싶은 쌍둥이자매였다. 그날 장군님께서서는 쌍둥이자매로동자들의 건강을 염렘이 없이 살펴보시며 오래도록 현장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시였다.

그때로부터 20여년세월 우리 장군님께서 찾으신 곳, 만나주신 사람들은 그 얼마마야. 하긴 만 장군님께서서는 그렇듯 평범한 쌍둥이자매로동자들을 수십년세월 잊지 않고계시었으니 정녕 우리 장군님의 사랑과 은성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은 생을 누르고있었던가. 어버이장군님을 우리르려는 일군들의 가슴은 불덩어리를 안은듯 달아오르는데 어느새 쌍둥이자매가 《장군님!》 하고 목머머 부르며 달려오고있었다. 새간 나서 오매동한 못 뵈던 딸자식들을 만나신듯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신 장군님께서서는 정겹게 말씀하시였다. **《20여년전에 뵈었던 쌍둥이자매를 오늘 다시 만나니 정말 반갑습니다.》** 아버지와 쌍둥이자매의 오랜만의 상봉을 편상시키는 뜻깊은 광경앞에서 일군들은 모두 눈을 습벅이였다. 그때는 애젊은 처녀들이었는데 벌써 45살이 되었다.

그때로부터 20여년세월 우리 장군님께서 찾으신 곳, 만나주신 사람들은 그 얼마마야. 하긴 만 장군님께서서는 그렇듯 평범한 쌍둥이자매로동자들을 수십년세월 잊지 않고계시었으니 정녕 우리 장군님의 사랑과 은성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은 생을 누르고있었던가. 어버이장군님을 우리르려는 일군들의 가슴은 불덩어리를 안은듯 달아오르는데 어느새 쌍둥이자매가 《장군님!》 하고 목머머 부르며 달려오고있었다. 새간 나서 오매동한 못 뵈던 딸자식들을 만나신듯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신 장군님께서서는 정겹게 말씀하시였다. **《20여년전에 뵈었던 쌍둥이자매를 오늘 다시 만나니 정말 반갑습니다.》** 아버지와 쌍둥이자매의 오랜만의 상봉을 편상시키는 뜻깊은 광경앞에서 일군들은 모두 눈을 습벅이였다. 그때는 애젊은 처녀들이었는데 벌써 45살이 되었다.

그때로부터 20여년세월 우리 장군님께서 찾으신 곳, 만나주신 사람들은 그 얼마마야. 하긴 만 장군님께서서는 그렇듯 평범한 쌍둥이자매로동자들을 수십년세월 잊지 않고계시었으니 정녕 우리 장군님의 사랑과 은성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은 생을 누르고있었던가. 어버이장군님을 우리르려는 일군들의 가슴은 불덩어리를 안은듯 달아오르는데 어느새 쌍둥이자매가 《장군님!》 하고 목머머 부르며 달려오고있었다. 새간 나서 오매동한 못 뵈던 딸자식들을 만나신듯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신 장군님께서서는 정겹게 말씀하시였다. **《20여년전에 뵈었던 쌍둥이자매를 오늘 다시 만나니 정말 반갑습니다.》** 아버지와 쌍둥이자매의 오랜만의 상봉을 편상시키는 뜻깊은 광경앞에서 일군들은 모두 눈을 습벅이였다. 그때는 애젊은 처녀들이었는데 벌써 45살이 되었다.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속에 대하이 걸여온 자랑찬 력사를 가슴뜨겁게 되새긴다. -남포수산대학에서- 본사기자 강 정 민 적음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1937년 겨울 (1938년초까지) 을 몽강현 마당거우밀영에서 보냈다. 아군이 감쪽같이 이 밀영으로 자리를 감추자 우리를 찾아 헤매던 적들은 기진한 나머지 《공산군을 완전멸망하였다.》고 오만스럽게 떠들면서 인민들에게 기만선전을 일삼고있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적들은 조중인민들의 반일사상을 마비시키며 유격대원들의 전투사기를 저락시켜보려고 획책하였다. 그러나 높ילים 원하는바와는 달리 인민혁명군은 이 겨울에 자기력량을 정비하고 전투준비를 더욱 튼튼히 하고있었다. 이른바 적들은 적들 자신에게 있어서 제 손으로 제 목에 울거미를 거는셈이 되고말았다. 이를테면 일만군병사들로 하여금 아군을 파소 평가하는 안일감에 물든것에 하였으며 이것은 오히려 아군의 유격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였을뿐이었다.

이때 몽강현 마당거우밀영에 계 시던 위대 한 수 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산하 각 부대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동기간 아군이 소규모적인 작전으로 이행하게 되자 적들은 지금 안일감에 물든것에 있다. 아군은 안일감에 사로잡힌 적들의 약점을 리용하여 제때에 적의 유성력량을 소멸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조중인민들속에서 애국주의사상을 교취시키며 아군의 필승불패의 신심과 전투사기를 앙양시키는 한편 앞으로의 대규모적작전수행에 필요한 포복, 식량, 탄환 기타 군수물자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 명령을 접수한 우리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1938년 봄을 맞이하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에서

크나큰 믿음과 기대. 주제 56 (1967)년 4월 어느날이었다. 평양시내의 어느 한 상점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상점 안에서 리용하고있는 상품주문대장을 보아주시였다. 매 세대 주민들의 이름과 함께 그들이 주문한 상품목적이 적혀있는 상품주문대장을 한장장장 번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곳 일군에게 여기에 적은 상품들을 다 해결해주셨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다 해결해주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리었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참 좋은 일이라고, 인민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이윽고 상품주문대장을 유심히 살펴보시던 장군님께서서는 문득 일군에게 어느 한 신촌부부의 가정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그 집에 가보았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이 가보지 못했다고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그러니 그 집에 책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조용히 뇌이시였다. 순간 일군은 심한 죄책감을 느끼시였다. 사실 그들은 인민들이 상품을 요구하면 그것을

해결해주는데만 그치지 않고 그들의 집을 찾아가 필요되는 상품에 대하여 알아볼 생각은 전혀 해보지 못하였던것이다. 승수스러운 마음을 안고 서있는 일군을 다정히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상품주문대장을 만들어놓고 상품을 주문받았던것만으로도 주민들의 요구를 다 해결해준다고 불수 없다고, 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진심으로 도모하자면 그들의 생활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상업일군들은 말 그대로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진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이 어떤가고 또 다시 물으시였다. 판매원이 펜 잡고 있다고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어디 좀 보라고 하시며 주민들에게 품공을 찾아주시셨을 때의 일이다. 상점안을 돌아보시며 여러가지 상품을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된장 매대앞에서 걸음을 서시던 된장빚감을 눈여겨 살펴보시다가 된장의 질이 시원치 못한것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그에게 된장맛이 좋아야 국맛이 구수하고 밥맛을 들어준다고 하시면서 이 장을 만드는 공장에 질을 높여달라고 제기해왔는가고 물으시였다. 본사기자 정 순 학

인민은 유격대를 피로써 도왔다

오 백 룡. 신망, 신부를 어떻게 데려오겠는가 하고 누가 대답하자 그들은 《우연 그런 신고를 받은 일이 없다. 어서 데려와.》하고 울며머서 종신 신망, 신부도 데려와 했다. 그러고는 종일 사람들을 길잡이부역에 내보내고 그동안에 저허들끼리 잔치상을 다 먹어버렸다. 이 백수의 날장도보다 더한 높음을 저축하지 못하고 한하늘아래에서 사는것이 인민들은 통분하기 그지없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를 보자 부락인민들은 높음을 흘리며 반겨와하였다. 인민들이 유격대를 마중나오는 그때 북쪽포대에서 불이 우리에게 사격을 가해왔다. 북쪽포대안은 일군을 찾지 못해 아직 우리 대원들이 올라가지 못한 채 있었다. 인민들에게 피해가 생길수 있는 급한 순간이었다.

대원들은 두팔을 벌리고 비탈치듯 적편이 쏘아지는 속에서 인민들을 서둘러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북쪽포대의 적들은 한강처럼 대항하였다. 적편이 꺾임을 스키고 지나가는 소리와 궤물 분명 화약냄새까지 감각할수 있었다. 이때 돌출에서 이를 감판서 적화구를 쏘아보던 유격대원이 몸을 일으켜 앞으로 달려나서 포대우측의 민가로 재빨리 뛰어물었다. 그는 4련대 2소대장 김동무였다. 포대문을 훔쳐오러 바삐 달려간 그의 얼굴은 땀투성이였다. 그가 부엌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기에 한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어머니에게로 달려간 김동무의 가슴속에서는 불보다 더 뜨거운 무엇이 치밀어올랐다. (어머니, 어머니가 우리에게 피를 흘려 주며 부린 붉은 피는 헛되지 않을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 원썬들을 모조리 소멸하고야말겠습니다.) 소대장은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며 비호와 같이 포대안으로 돌입했다. 뒤를 이어 련속 유격대원들이 몰입되어 포대내로 달려들었다. 유격대원들의 힘찬 발구름소리, 우렁찬 만세소리, 짜짙의 사격소리, 적들이 지르는 제지라는 한 비명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머니는 나지막하게 《장군님, 장군님...》하고 속삭이듯 부르며 생애를 마쳤다.

국광복회 조직성원인 황로인이 어머니를 찾아와 목적인 보마리를 내놓으며 말하는것이였다. 《장군님께서 설을 쇠라고 선물을 보내주셨소. 아주머니, 자 반소.》 어머니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안이 병병했었는데 로인은 말하기를 유격대원들이 30여군의 선재 지고기와 쉼, 양방 등축을 련락장소인 백부리군처에 갖다놓았는데 그속에는 가난한 집들에서 나누어가지도록 하라는 장군님의 편지도 같이 있던것이였다. 이날 어머니는 처음으로 어린것에게 양말을 신고보았다. 그때로부터 조오선 어머니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 그날을 더욱 애제 기억하러왔던것이다. 높ילים 제이무리 《공산군을 완전 소멸했다.》고 떠들어도 어머니는 밤이 지나면 꼭 붉은 해가 동산으로 떠오르듯이 겨울이 가면 반드시 장군님의 승리의 새 소식과 함께 새 나지막하게 《장군님, 장군님...》하고 속삭이듯 부르며 생애를 마쳤다.

우에 우리는 이 어머니가 김일성동지의 영상을 눈앞에 그리며 정열한 최후를 마친 불라는 심정이 정열이었는데 그 사연을 안수 있었다. 조오선어머니는 예능들의 보습을 애제민에서 한습과 눈물의 나날을 보내오던 가난한 조선녀성이였다. 그 어머니에게도 남부럽지 않게 기쁘고 행복의 날이 있었다. 하루는 뜻밖에 오매에도 그러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내주시신 선물을 받았던것이다. 그것은 실명질을 앞둔 추운 어느 날이었다. 돈있는 집에서는 아이들의 설비를 만드는데, 띠를 친다. 지침을 지진다 야만인데 조오선어머니는 당장 끼니를 끓일 날알이 없어서 기막히고 헌신한 나머지 혼자 가슴만 쥐어짜고있었다. 그러던차에 저녁때 부락에서 조

우에 우리는 이 어머니가 김일성동지의 영상을 눈앞에 그리며 정열한 최후를 마친 불라는 심정이 정열이었는데 그 사연을 안수 있었다. 조오선어머니는 예능들의 보습을 애제민에서 한습과 눈물의 나날을 보내오던 가난한 조선녀성이였다. 그 어머니에게도 남부럽지 않게 기쁘고 행복의 날이 있었다. 하루는 뜻밖에 오매에도 그러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내주시신 선물을 받았던것이다. 그것은 실명질을 앞둔 추운 어느 날이었다. 돈있는 집에서는 아이들의 설비를 만드는데, 띠를 친다. 지침을 지진다 야만인데 조오선어머니는 당장 끼니를 끓일 날알이 없어서 기막히고 헌신한 나머지 혼자 가슴만 쥐어짜고있었다. 그러던차에 저녁때 부락에서 조

영원히 실현될수 없는 어리석은 망상

보도원바와 같이 지난 5월 8일 리명박역도는 도이정판도를 행각하며 동포간담회, 기자회견 등을 벌여놓고 존엄높은 우리의 체제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을 가지고 배틀전장벽이 어떻다냐, 《통일》이니 하고 체제대결망상을 거리검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존엄에 대한 극악한 모독이고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다. 역도가 제집안에서 모자라 해외에 나가서까지 대결망상을 제쳐낸것은 보수패당이 체제대결망에 얼마나 환장이 되였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리명박역당이 우리의 사상과 체제를 적대시하면서 어떻게 하나 해쳐보려고 날뛰고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보수패당은 지금 우리의 존엄높은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극단한 무지에 빠져있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허황하기 지극한 그 누구의 《근본사관》설을 읊조리며 《통일대체담적연구》, 《비상통치계획》이니 하는 불손한 각본을 구며내고 《통일세》를 도입한다. 《공론화》한다 하고 분주함을 피우고있다. 이번에는 리명박역도가 해외행각에서 도발적인 망발을 늘어놓았다. 그야말로 암투하기 지극한 정치모험자의 가소로운 추태가 아닐수 없다.

사회체제의 공고성과 전도는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에 달려있다. 우리의 사회주의체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신뢰에 기초한 인민대중중심의 체제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모진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불멸의 위력을 떨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신심드높이 강성대국의 행마를 향하여 대고조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구하여 금번사태에 대해 말한다면 올바른 정치철학도 없고 인민대중의 거세찬 반 《정부》 투쟁의 불길속에 허덕이는 보수패당에나 있을 일이다. 사실상 지금 남조선정치정세는 보수패당의 과멸을 예고하며 4. 19와 같은 금번사태로 육박하고있다. 리명박역도가 체제도 못 갖는 주제에 까마귀 봉황잡을 황당할 꿈을 꾸면서 우리 인민의 생명인 사회주의를 감히 남보스것이아말로 우리에게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도발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체제대결야망을 한사코 추추하면서 우리의 사회주의체제를 함부로 모독하는 반역패당의 죄악을 추호도 묵과하지 않을것이며 반드시 천백배로 결산할것이다.

남조선보수패당이 벌이고있는 체제대결운동은 《통일》이라는 간편한 동쪽을 헤치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통일》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빈민적극당망이다. 북과 남에는 지금 서로 다른 사상과 체도가 고착되어있다. 누구도 자기의 체제를 양보하려 하지 않는 조건에서 이 일방의 체제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 한다면 대결과 충돌을 피할수 없다. 북과 남은 사상과 체도의 차이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니 그 차이가 아니라 그 차이가 화합하고 단결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실적조건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은 가장 합리적인 공평정당한 방도는 북과 남의 사상과 체도를 인정하고 융합하는 기초에서 제도방면에서도 통일을 이룩하는것이다. 북과 남의 사상과 체도의 차이를 절대시하면서 상대방의 사상과 체도를 부정하는것은 통일이 아니라 대결과 전쟁으로 가는 길이다. 남조선집권세력은 우리의 존엄높은

체도를 한사코 부정하면서 저들의 색어변진 식민주의파괴체제에 의한 통일을 실현하려는 흉악한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통일》을 궁극적목표라고 서슴없이 떠벌이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통일헌법》을 조작하려고 획책하는가 하면 통일이라는 신성한 말을 함부로 도용하여 《통일이 반드시 온다.》느니, 《그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한다.》느니 하고 떠벌며 체제대결행동을 격화하고있다. 그들이 떠벌어대는 《통일》이란 우리를 무력으로 헤치는 범죄적인 체제통일이다. 얼마전 괴뢰호전파들이 《금번사태》에 대비한다고 고야대며 그에 따른 《작전계획 5029》를 미국과 함께 벌린 《키리콜트》,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적용한것은 보수패당이 민족의 머리에 전쟁의 재건을 몰아오는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피눈물 흘려왔고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리명박역당의 책동은 자주통일, 평화번영으로 향한 민족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이며 반혁명적인 범죄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남조선보수패당이 추추하는 체제대결책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우리 민족이 한결같이 바라고있는것은 북과 남의 대결과 단결이 아니라 화해와 단합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겨레의 지향에 도전하여 한사코 체제대결을 추추하면서 그를 위해 북남관계를 날로 더욱 위협한 전쟁준비에 몰아고있다. 괴뢰호전파들은 북남관계개선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오늘에 와서까지 《천안》호사건과 영평도사건과 같은 반공화국

모략사건들을 코에 걸고 북침전쟁도발 책동에 열을 올리는 한편 그에 대한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운운하면서 북남사이에 대결의 장벽을 더욱 높이 쌓고있다. 지금도 남조선당국은 《천안》호사건과 영평도사건에 대한 《사과》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거머쥔 북남관계개선요구에 역행해나서고있다. 이번엔 리명박이 해외에서 나가 그 도모사건들을 거들면서 또다시 우리의 선의와 최고 존엄에 도전해나선것은 체제대결과 북침전쟁도발에 확장한것의 추악한 정체를 낱알이 드러내보여주고있다. 동족대결에 갈수록 열을 올리는 보수패당의 책동은 남조선 각계의 강력한 항의규탄에 부딪히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시민, 사회단체, 야당들은 모임을 가지고 보수당국이 6. 15 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대결정책에 매달리며 전쟁기구를 고조시키고있다고 규탄하면서 로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여성, 지식인, 예술인단체들을 비롯한 모든 진보세력들이 보수 《정권》에 맞서 투쟁할것을 호소하였다. 해외의 많은 교포단체들이 반혁명적 책동을 고취하는 보수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과감한 투쟁을 벌려나갈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것은 체제대결책동에 미쳐나뛰는 남조선보수당국에 대한 온 겨레의 한결같은 저주와 규탄의 반영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남조선보수패당의 체제통일야망은 영원히 실현될수 없는 어리석은 망상이다.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위업을 해치면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남조선괴뢰들의 체제대결책동을 파산할 면치 못할것이다. 은 정 철

《전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75년》

메히꼬 단체 불려진 발행

조국광복회창립 75년과 6. 15 북남공동선언발표 11주에 즈음하여 메히꼬 김일성주의 연구원회에서 《전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75년》이라는 제목으로 불려진 제56호를 발행하였다. 불려진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사건과 함께 편집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민족대단결이 민족이 살아나갈 길이다. 민족이 번영하는 길도 있다. 이것은 지난번 역사발전과정에 조선인민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잡은 신념이며 의지이다. 민족대단결사상을 내놓으시고 처음으로 구현하신분은 김일성주석이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항일혁명기의 나날 나날의 독립과 민족의 번영을 민족자결의 힘,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시어 반일민족통일전쟁을 형성할때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었다. 주석의 영도밑에 1936년

5월 5일 조국광복회가 창립되어 조선국내는 물론 중국 만주와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까지 수많은 회원을 둔 범민족적인 조직으로 확대발전하였다. 조국광복회의 창립과 활동은 조선민족대단결의 고귀한 전통으로 되었다. 그 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조선인민은 해방후 그처럼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힘있는 사람으로 남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새 조국건설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단합된 힘으로 싸워 민족이 일어난 3년간의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전후 짧은 기간에 복구건설을 끝내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었다. 조국통일 3대헌장의 기치아래 통일운동을 힘있게 전진시켜온 것도 자주와 단결의 리념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신 김일성주석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방글라데쉬인사 6. 15 북남공동선언을 지지

민족의 통일운동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역사적사건이었던 6. 15 북남공동선언의 기치아래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룩하여야 하는 것을 굳게 확신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이후면서 전쟁 연습소동을 계속 벌이는것이 아니라 대결을 격화시키기 위한 반민족적인 범죄행위이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북남관계 개선을 민족의 수렁에 몰아넣고 동쪽을 무력으로 해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할수 있다. 우리 공화국의 대화노력은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고있다. 온 겨레의 의사에 맞게 북남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관계를 개선한다면 무엇보다도 남조선에서 북침전쟁도발책동이 중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이 보여주다싶이 남조선에서는 북침전쟁도발책동이 중지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있다. 얼마전 괴뢰호전파들이 《전군주요지휘회의》라는것을 벌여놓고 그 누구의 《동향과 군사대비태세》에 대해 떠들면서 《우발상황대비에 대한 준비를 기하라.》고 기명을 타하였다. 이것은 남조선호전파들이 잊지않고 있는 《북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더한층 강화하려 한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우리를 적대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침공하기 위한 전쟁책동이 끊임없이 감행되고 있다.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침공하기 위한 전쟁책동이 끊임없이 감행되고 있다. 얼마전에도 남조선호전파들은 해병대부대를 내몰아 백령도와 영평도일대에서 포사격훈련을 벌였으며 여러 차례의 강습을 조성하였다. 한편 경기도일대에서 는 야외기동훈련이 벌어지고있다. 남조선당국의 전쟁책동은 매우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고있다. 남조선호전파들의 전쟁책동은 긴장완화의 흐름에 역행하여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준비경로로 몰아가는 기본요인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북남관계문제에 대화의 방향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천안》호사건과 영평도포격사건에 대한 그 무는 《책임있는 조치》와 핵포로를 계속 가들며 대화를 회피하고 북침전쟁책동에 갈수록 열을 올리고있다. 남조선에서 끊임없이 감행되고있는 전쟁연습소동이 그것을 말해 주고있다. 올해만 놓고보아도 괴뢰호전파들은 그 무는 《도발대비》를 운운하며 그로부터 비상전투비대응, 사격훈련, 후한 기전술훈련 등 각종 불량난소

동들을 벌여놓았다. 2월말부터는 날과 달을 이어가며 미제침략군과 함께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을 노린 《키리콜트》와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광범적으로 감행하였다. 특히 엄중하였는 조선시해 해상에서 북침전쟁연습의 포성이 매일같이 울리고있는 사실이다. 괴뢰호전파들은 1월에는 서해 5개 섬일대에서 그 누구의 《기습상황 및 잠정상황》을 가정한 도발적인 군사연습을 벌였을것으로 3월에는 미국과 야합하여 해안군수 지원훈련도 실시하였다. 《천안》호사건 1년을 계기로는 전투합선들과 해상초계기 등 수많은 무력을 투입하여 실탄까지 쓰이며 불장난소동을 광범적으로 벌였다. 얼마전 백령도와 영평도일대에서 포사격훈련을 강행한 호전파들은 7월경에는 백령도에서 미국과의 연합해군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평화와 전쟁연습은 쌍립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대화노력을 의면하면서 전쟁연습을 계속 발발적으로 벌려놓음으로써 조선반도의 평화는 엄중히 위협당하고 핵전쟁

발발의 위험은 끊임없이 고조되고있다.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을 위한 남조선반도의 정세도 불안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당국의 무모한 북침전쟁도발책동은 이미 남조선에서 북침전쟁도발책동이 중지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있다. 얼마전 괴뢰호전파들이 《전군주요지휘회의》라는것을 벌여놓고 그 누구의 《동향과 군사대비태세》에 대해 떠들면서 《우발상황대비에 대한 준비를 기하라.》고 기명을 타하였다. 이것은 남조선호전파들이 잊지않고 있는 《북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더한층 강화하려 한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우리를 적대

방글라데쉬인사 6. 15 북남공동선언을 지지

이후면서 전쟁 연습소동을 계속 벌이는것이 아니라 대결을 격화시키기 위한 반민족적인 범죄행위이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북남관계 개선을 민족의 수렁에 몰아넣고 동쪽을 무력으로 해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할수 있다. 우리 공화국의 대화노력은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고있다. 온 겨레의 의사에 맞게 북남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관계를 개선한다면 무엇보다도 남조선에서 북침전쟁도발책동이 중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이 보여주다싶이 남조선에서는 북침전쟁도발책동이 중지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있다. 얼마전 괴뢰호전파들이 《전군주요지휘회의》라는것을 벌여놓고 그 누구의 《동향과 군사대비태세》에 대해 떠들면서 《우발상황대비에 대한 준비를 기하라.》고 기명을 타하였다. 이것은 남조선호전파들이 잊지않고 있는 《북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더한층 강화하려 한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우리를 적대

폭압 통치를 일삼는 파쇼당국을 단죄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범민련) 남측본부가 13일 문평을 발표하여 폭압통치를 일삼는 괴뢰당국을 규탄하였다. 문평은 이날 경찰이 《보안법》에 걸어 총정당도와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민주로동자전국회의 전직, 현직성원들의 집을 수색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에 앞서 12일 《국민의 명령》을 성원인 인터넷활동물 문제를 시하여 그의 집을 강제수

청년학생들에 대한 보복적인 탄압소동을 규탄

남조선의 6. 15 공동선언 실현 청년학생연대회 얼마전 괴뢰정부의 파쇼적탄압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최근 경찰과 정보원이 서울, 대전, 광주, 제주지역에서 단체학생들의 집과 사무실 지어 제주시 민주로동당 사무소까지 강제수색하였으며 4명을 체포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당국의 탄압을 받는 그들도 두는 독재 《정권》에 맞서 사회의 민주화와 민생안정,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성명은 주장하였다.

《인권》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가

속담에 입은 벼풀어져도 주라는 바로 불라고 하였다. 지금 남조선의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패당들은 미국의 북조선공작 《로막소동》의 꼭두에 장난을 맞추어 가며 리성을 잃고 헤매고있다. 리성은 잊지도 않고 그 누구의 《인권론》을 견고들면서 계속 못되게 늘어대고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최악의 인권유린자인 남조선의 비참한 처지를 가리우고 분노한 민생을 탄압해 돌러놓기 위해서이다. 더우기 이번엔 진행된 《제보총선거》에서 반인민적악정을 일삼던 《한나라당》은 대참패를 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것은 《승리》는 때론은 당산인듯이 시대인 《한나라당》에 있어서 다른하늘의 날벼락이 아닐수 없었다. 《선거》에서 패한 분을 싸지 못한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그 무는 《북인권법》이라는것을 조작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각계와 야당의 강한 반발로 빛도 보지 못한채 휴지통에 구겨박히게 되었다. 말그대로 보수패당의 처지는 본길에 돌부리를 걸어차야 제발만 아픈 격이 되었다. 문평은 체제도 못 갖는 불쌍한 처지에 놓인자들이 주체적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걸고매기 《인권》타령을 늘어놓는것이다. 얼마전 남조선의 《국회》의장이라는자는 그 무는 간담회에 나타나 《북인권법제정》이 조속히 진행되

긴장완화의 길에 가로놓인 장애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침공하기 위한 전쟁책동이 끊임없이 감행되고 있다. 얼마전에도 남조선호전파들은 해병대부대를 내몰아 백령도와 영평도일대에서 포사격훈련을 벌였으며 여러 차례의 강습을 조성하였다. 한편 경기도일대에서 는 야외기동훈련이 벌어지고있다. 남조선당국의 전쟁책동은 매우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고있다. 남조선호전파들의 전쟁책동은 긴장완화의 흐름에 역행하여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준비경로로 몰아가는 기본요인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북남관계문제에 대화의 방향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천안》호사건과 영평도포격사건에 대한 그 무는 《책임있는 조치》와 핵포로를 계속 가들며 대화를 회피하고 북침전쟁책동에 갈수록 열을 올리고있다. 남조선에서 끊임없이 감행되고있는 전쟁연습소동이 그것을 말해 주고있다. 올해만 놓고보아도 괴뢰호전파들은 그 무는 《도발대비》를 운운하며 그로부터 비상전투비대응, 사격훈련, 후한 기전술훈련 등 각종 불량난소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침공하기 위한 전쟁책동이 끊임없이 감행되고 있다.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침공하기 위한 전쟁책동이 끊임없이 감행되고 있다. 얼마전에도 남조선호전파들은 해병대부대를 내몰아 백령도와 영평도일대에서 포사격훈련을 벌였으며 여러 차례의 강습을 조성하였다. 한편 경기도일대에서 는 야외기동훈련이 벌어지고있다. 남조선당국의 전쟁책동은 매우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고있다. 남조선호전파들의 전쟁책동은 긴장완화의 흐름에 역행하여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준비경로로 몰아가는 기본요인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북남관계문제에 대화의 방향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천안》호사건과 영평도포격사건에 대한 그 무는 《책임있는 조치》와 핵포로를 계속 가들며 대화를 회피하고 북침전쟁책동에 갈수록 열을 올리고있다. 남조선에서 끊임없이 감행되고있는 전쟁연습소동이 그것을 말해 주고있다. 올해만 놓고보아도 괴뢰호전파들은 그 무는 《도발대비》를 운운하며 그로부터 비상전투비대응, 사격훈련, 후한 기전술훈련 등 각종 불량난소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침공하기 위한 전쟁책동이 끊임없이 감행되고 있다.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침공하기 위한 전쟁책동이 끊임없이 감행되고 있다. 얼마전에도 남조선호전파들은 해병대부대를 내몰아 백령도와 영평도일대에서 포사격훈련을 벌였으며 여러 차례의 강습을 조성하였다. 한편 경기도일대에서 는 야외기동훈련이 벌어지고있다. 남조선당국의 전쟁책동은 매우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고있다. 남조선호전파들의 전쟁책동은 긴장완화의 흐름에 역행하여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준비경로로 몰아가는 기본요인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북남관계문제에 대화의 방향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천안》호사건과 영평도포격사건에 대한 그 무는 《책임있는 조치》와 핵포로를 계속 가들며 대화를 회피하고 북침전쟁책동에 갈수록 열을 올리고있다. 남조선에서 끊임없이 감행되고있는 전쟁연습소동이 그것을 말해 주고있다. 올해만 놓고보아도 괴뢰호전파들은 그 무는 《도발대비》를 운운하며 그로부터 비상전투비대응, 사격훈련, 후한 기전술훈련 등 각종 불량난소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침공하기 위한 전쟁책동이 끊임없이 감행되고 있다.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침공하기 위한 전쟁책동이 끊임없이 감행되고 있다. 얼마전에도 남조선호전파들은 해병대부대를 내몰아 백령도와 영평도일대에서 포사격훈련을 벌였으며 여러 차례의 강습을 조성하였다. 한편 경기도일대에서 는 야외기동훈련이 벌어지고있다. 남조선당국의 전쟁책동은 매우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고있다. 남조선호전파들의 전쟁책동은 긴장완화의 흐름에 역행하여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준비경로로 몰아가는 기본요인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북남관계문제에 대화의 방향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천안》호사건과 영평도포격사건에 대한 그 무는 《책임있는 조치》와 핵포로를 계속 가들며 대화를 회피하고 북침전쟁책동에 갈수록 열을 올리고있다. 남조선에서 끊임없이 감행되고있는 전쟁연습소동이 그것을 말해 주고있다. 올해만 놓고보아도 괴뢰호전파들은 그 무는 《도발대비》를 운운하며 그로부터 비상전투비대응, 사격훈련, 후한 기전술훈련 등 각종 불량난소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뢰군에 대한 공격사건 연이어 발생

이에 앞서 14일에도 기지 주변에 로켓포탄이 날아와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뢰군에 대한 공격사건은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침공하기 위한 전쟁책동이 끊임없이 감행되고 있다.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침공하기 위한 전쟁책동이 끊임없이 감행되고 있다.

과학기술은 나라의 자주적발전의 추동력

자국의 튼튼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추지 못한 나라와 인민은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해나갈 수 없다. 지만날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주의로 있으면서 정당한 발전의 길을 역제당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모든 힘을 기울여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담보하는 자체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이 비상히 커지고 세계적으로 치열한 과학기술경쟁이 벌어지는 조건에서 발전된 과학기술을 가지지 않고서는 튼튼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마련할 수 없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날이 갈수록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은 비상히 커지고있다.

과학기술은 경제건설에서 비약을 일으키는 결정적담보이다. 과학기술이 안받침되지 않고서는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없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은 국방에서의 자위에 의하여 담보된다.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사업을 떠나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진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하면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지킬수 있고 약한 제국주의자들에게 먹히우고만다. 그러므로 어떤 조건에서도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튼튼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의 비약적발전도, 군사력의 강화도 과학기술에 의하여 담보된다. 경제력, 군사적위력을 남김없이 발달시킬수 있는 중요한 열쇠는 과학기술발전 속에 있다.

오늘의 국제정세는 발전도상나라들로 하여금 과학기술발전에서 어느때보다도 큰 힘을 넣을것을 요구하고있다. 비록 세계적으로 치열한 과학기술경쟁이 벌어지고있다. 많은 나라들이 과학기술발전예 관심을 돌리면서 이 분야에 자금과 노력 등을 아낌없이 들이고있다. 과학기술발전과 관련한 주도세일인 장기계획을 세우고 적극 추진시키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침략적, 약탈적목적으로부터 과학기술을 독점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돈과 재물 등으로 매수하거나 유혹하여 빼내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과학기술인재들을 <초청>이라는 구실 밑에 끌어다 리용하고있으며 지어 다른 나라들에서 과학기술인재를 람치해가까지 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인류의 제부인 과학기술을 독점하여 더 많은 리윤을 얻으려는 다른 나라들의 과학기술발전을 억제하고 그 나라들을 과학기술적으로 예속시키려 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최첨단과학기술, 정보기술발전에서 차지하고있는 저들의 일사적인 우세를 리용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을 유혹하고있다. 그들은 첨단과학기술을 저들의 독점물로 삼으면서 발전도상나라들에서는 그것을 절대로 가질수 없다고 떠들고있다. 그들은 최첨단과학기술, 정보기술이 발전도상나라들에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발전도상나라들에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는것을 달가워하지 않고있다. 그들은 발전도상나라들에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저들의 지배주의적이익을 실현할수 없다는 타산으로부터 여러가지 부당한 조건들을 걸어 이 나라들에서 과학기술연구개발이 도입되지 못하게 방해하고있다.

현실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면 나라와 민족이 흥하지만 제국주의자들의 과학기술봉쇄에 놀려워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언제 가도 뒤떨어진 상태에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발전된 과학기술을 가지는것은 자주와 평화, 번영을 바라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념원이며 리상이다. 그러나 그것은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실현되는것이 아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오늘 과학기술을 통하여 다른 나라들을 더욱 교활한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과학기술봉쇄에 자체의 과학기술발전전략으로 맞서나아가야 한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주제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자기 나라의 주제적립장 현실적요구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나가는것이 중요하다. 다른 나라들과의 과학기술교류를 확대발전시키며 새로운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서는 경우에 자체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야 한다.

남남합조를 실현하는것은 발전도상나라들이 과학기술발전을 이룩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발전도상나라들은 풍부한 자연부원과 과학기술보충에 자체의 과학기술력을 과학기술성과를 가지고있다. 남남합조야말로 발전도상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과학기술봉쇄에 자체의 과학기술력을 발휘하고자하는 효과적인 방도이다.

발전도상나라들은 모든 가능성과 조건을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과학기술을 새로운 토대에 올려세우기 위해 호상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발전도상나라들에 있어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에 힘을 넣는것이 중요하다.

제국주의자들은 발전도상나라들에 과학기술을 절대로 전사하지 않는다. 오직 주제적립장에서 서서 자체로 투쟁하는것만이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책동을 짓부시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킬수 있는 길이다.

발전도상나라들이 인민의 힘과 지혜를 높이 발달시키고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을 적극 동원한다면 능히 과학기술발전의 높은 명마루에 올라설수 있으며 현대과학기술의 힘으로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경우를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과학기술발전예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이 사업에 커다란 힘을 기울여왔다.

우리 나라에서 그처럼 어려웠고 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과학연구자들이 더욱 튼튼히 꾸려지고 인공지구위를 쫓아다니는것과 같은 놀라운 과학기술적성과들이 이룩될수 있는것은 우리 당이 과학기술정책을 실시하면서 품을 들여 이 사업을 적극 떠맡아온데 있다. 만일 우리 당이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발전시키지 않았다면 강성대국건설의 도야도 마련할수 없었을것이며 강력한 자립적국방공업도 가지지 못하였을것이다.

우리 나라는 력사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속에서 살았다. 지금도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속에서 살아가고있다.

과학자들은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억제하기 위하여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주저앉지 않고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왔다. 제국주의자들이 책동하면 할수록 더욱 분발하여 일떠서는것이 우리 인민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기질이다.

남들이 이미 만든것은 그보다 더 월등하게 만들고 남들이 만들지 못했던것을 대담하게 만들어내며 민족의 슬기를 세계에 떨치나간다는것이 우리 인민의 의의이다. 지만날 우리 나라에서의 핵융합의 성공은 그 단적실례이다. 인류가 리상하는 새 에너지를개발을 위한 최첨단과학기술분야의 하나로서 인공태양기를최대 한 핵융합기술은 원천이 무진장하고 환경피해가 거의 없는 안전한 새 에너지를 얻기 위한것으로서 오늘 세계과학계의 커다란 관심을 모고있다. 막대한 투자와 첨단과학기술적대기 안받침되어야 하는 이 기술의 개발은 새 세기초에 와서도 발전되겠다고 하는 몇개 나라에서만 시도할까를 본다.

우리의 과학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경제책동속에서도 동요없이 제기되는 모든 과학기술적문제들을 100% 자체의 힘으로 해결함으로써 자립내 핵융합반응실험에 성공하였다. 우리 나라의 과학자들이 핵융합에 성공함으로써 새 에너지를개발을 위한 돌파구와 확고하게 열려있으며 나라의 최첨단과학기술발전에서는 새로운 경지로 개척되게 되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온 나라의 CNC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우리 식 CNC기술의 개발과 리용으로 우리 나라는 과학기술강국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으며 과학기술은 비약적인 발전단계에 이르렀다.

우리 나라의 실천적경험과 현실은 자주적, 창조적립장을 견지하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마음먹고 달려왔으면 뒤떨어진 나라들도 얼마든지 과학기술적진보와 발전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자주, 자립의 원칙을 틀어쥐고 제국주의자들의 과학기술봉쇄책동에 과학기술발전 전략으로 맞섬으로써 현대과학기술의 새 경지를 개척하고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다그쳐나아가 왔었다.

장철수

미군철수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간섭정책의 종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는 요즘 미국에서 남조선주둔 미군철수주변이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다.

최근 미국잡지 <포브스>는 미국 케이트연구사의 한 삼공연구사가 미군의 남조선주둔이 더이상 필요없다고 주장한 기고문을 실었다.

연구사는 최근년간 미국정부의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데는 나름대로의 리유가 존재하고있다고 하면서 그 하나가 다른 나라들을 미국이 <방위> 해주어야 한다고 고집하는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자기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는 왜 부대를 창설하여 해외에 주둔시키는데 리용하는지, 왜 미군이 남조선에 <방위> 하기 위해 전투를 준비하고있는지 리해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는 탱크시기에는 조선반도가 미국의 리익과 직결되었다고 불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북조선이 핵을 보유한 조건에서 수만명의 남조선주둔 미군은 북조선의 핵인질로 될뿐 아니라 남조선주둔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끊임없이 다른 나라들의 일에 개입하고 여기저기에서 사안을 죽이는것은 적을 더 많이 만들뿐이라고 하면서 시대착오적으로 제국주의적인 개입정책을 위험하기 짝이없기때문에 미국은 이제는 그러한 정책을 중단하겠다고 말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전 미국대통령 레건의 특별보좌관이었던 연구사는 최근년간 미국의 지속적인 이라크전쟁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확대가 미국의 파멸을 촉진시킨다는 주요책제라는 글을 써서 내외여론의 주목을 끈바 있다.

이런 그가 이번엔 남조선강점 미군철수의 절박성에 대해 강조한것은 국제사회의 응당한 주목을 끌고있다.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것은 시대의 요구이며 미국에 있어서 더이상 회피할수 없는 문제이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미국의 침략적대조선, 대아시아정책실현을 힘으로 뒷받침해주는 주요군사력수이며 핵실험위협이다. 미국이 남조선강점 미군부대를 체계적으로 증강하고 군사장비의 현대화를 다그치며 남조선피해들과 북조선전연습을 빈번히 벌이며 북조선반도에 대한 심각한 사태가 조성되었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존재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물론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한 위협을 받고있다. 세계평화에 호인민들이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를 강력히 요구하고있는 리유는 하나가 여기에 있다.

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미군이 남조선에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 미국이 세계평화에 호인민들과 자국내에서 높아가는 비난과 배격에 몰려오는 처지에서 벗어 나려 한다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지배와 간섭정책을 포기하고 세계도처에 널리 퍼진 미군 특히 남조선에서 미군을 하루빨리 철수해야 한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고 남조선에서 영구강점을 피하는 조건에서는 조미, 북남대결상태가 절대로 해소될수 없다. 미국이 전쟁의 근원인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할 때까지 북남증강에 광범하는 한 조선반도의 평화는 물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담보될수 없다.

남조선에서의 미군철수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선결조건이며 조선반도문제해결의 기본열쇠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면 마땅히 그 근본문제인 미군철수문제부터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체제수립목표는 미국의 거부적인 립장으로 하여 토의조차 되지 못하고있다. 미국은 탱크식사고방식에 사로잡혀 그러한 근본문제를 의면하고있다. 이것은 미국의 고질적인 대결관점, 전쟁의식의 발로이다. 미국이 평화보장체제수립문제를 의면하는것은 조선반도문제해결의 직접적장애사로서는 공평한 책임회피이다.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과 망상을 털어 버리지 못하고 그 누구를 아예보려고 계속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것은 자기자신을 위협하는 리용이 될수 없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철회되고 미군이 남조선에서 철수해야 한다는것이 공평한 리유에 입한 요구이다.

남조선에서 미군이 철수될수 있도록 하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남조선에 대한 영구강점기조를 계속 추구한다면 더 큰 국제적 교란과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될것이다. 미국은 대세의 흐름과 민심을 의면하지 말고 남조선에서 미군을 시급히 철수하여야 한다.

리현도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과 망상을 털어 버리지 못하고 그 누구를 아예보려고 계속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것은 자기자신을 위협하는 리용이 될수 없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철회되고 미군이 남조선에서 철수해야 한다는것이 공평한 리유에 입한 요구이다.

남조선에서 미군이 철수될수 있도록 하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남조선에 대한 영구강점기조를 계속 추구한다면 더 큰 국제적 교란과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될것이다. 미국은 대세의 흐름과 민심을 의면하지 말고 남조선에서 미군을 시급히 철수하여야 한다.

리현도

리현도

리현도

리현도

리현도

리현도

리현도

리현도

리현도

리현도

리현도

리현도

리현도

리현도

리현도

리현도

리현도

리현도

리현도

리현도

리현도

리현도

리현도

진정한 인민의 나라

특목이 짙어가고 온갖 꽃들이 피어나는 화창한 봄철에 평양에서 성화대에 진행된 국제상동전람회 참가한 나의 마음은 기쁘기 그지없다.

평양은 오면 울수룩 참으로 인상깊은 도시이다. 아마도 그것은 평양이 다른 나라들의 도시들에 비해 류달리 공기 맑고 목욕이 잘되고 모든 살림들이 구획에 맞게 현대적으로 보기 좋게 건설되었기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솔직히 말하여 지난해에 있던 제 13차 평양불철국제상동전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조선에 오기 전까지만 하여도 조선에 대한 나의 표상이란 것에서 우리 싱가포르와 류사한 작은 나라라는것뿐이었다.

나는 평양을 방문하고자야 조선이 발전된 나라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엔 더욱 느낄수 있었다. 나는 이번까지 두차례에 걸쳐 평양을 방문하면서 조선이 야말로 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최대로 중시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인민민주주의의 특색이 짙어가고 있는 나라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 국제사회에서 평양을 가리켜 <평안속의 도시>라고 하는것도 실은 사람을 세상에 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조선당과 정부의 인민적인 시책이 수도건설에 빛나게 구현되었기때문이다.

내가 평양을 방문하는 과정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조선당과 정부는 사람들의 건강증진, 문화정서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있는 수도의 수림화, 원림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국가적투자를 아끼지 않고있다.

인민위원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김일성주석과 그이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김정일령도자의 손길아래 최근년간 조선에서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거창한 사업들이 힘있게 벌어져 훌륭한 결실들이 맺어지고있다.

나는 이번엔 조선을 방문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것을 자기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조선로동당이 올해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해>로 정하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에 힘있게 힘쓰고있다는데서 깊은 감동과 충격을 받았다.

이것만 보아도 조선은 진정한 인민의 나라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우리 회사는 식품가공과 판매를 전문하는 기업체로서 조선의 해당 부문의 교류와 협력을 긴밀히 하는것을 통하여 싱가포르와 조선과의 친선협조관계발전과 조선인민의 강성대국건설위업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자 한다.

두차례에 걸쳐 조선을 방문하면서 조선에 접이 든 나는 조선인민에 대하여 친선의 감정을 품고있다. 나는 김정일령도자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조선이 앞으로 더욱 부강번영할것이라고 확신한다.

싱가포르 학생시용유환회사 경리 씬씨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인민민주주의의 특색이 짙어가고 있는 나라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엔 더욱 느낄수 있었다. 나는 이번까지 두차례에 걸쳐 평양을 방문하면서 조선이 야말로 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최대로 중시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인민민주주의의 특색이 짙어가고 있는 나라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 국제사회에서 평양을 가리켜 <평안속의 도시>라고 하는것도 실은 사람을 세상에 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조선당과 정부의 인민적인 시책이 수도건설에 빛나게 구현되었기때문이다.

내가 평양을 방문하는 과정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조선당과 정부는 사람들의 건강증진, 문화정서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있는 수도의 수림화, 원림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국가적투자를 아끼지 않고있다.

인민위원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김일성주석과 그이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김정일령도자의 손길아래 최근년간 조선에서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거창한 사업들이 힘있게 벌어져 훌륭한 결실들이 맺어지고있다.

나는 이번엔 조선을 방문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것을 자기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조선로동당이 올해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해>로 정하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에 힘있게 힘쓰고있다는데서 깊은 감동과 충격을 받았다.

이것만 보아도 조선은 진정한 인민의 나라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우리 회사는 식품가공과 판매를 전문하는 기업체로서 조선의 해당 부문의 교류와 협력을 긴밀히 하는것을 통하여 싱가포르와 조선과의 친선협조관계발전과 조선인민의 강성대국건설위업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자 한다.

두차례에 걸쳐 조선을 방문하면서 조선에 접이 든 나는 조선인민에 대하여 친선의 감정을 품고있다. 나는 김정일령도자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조선이 앞으로 더욱 부강번영할것이라고 확신한다.

싱가포르 학생시용유환회사 경리 씬씨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인민민주주의의 특색이 짙어가고 있는 나라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엔 더욱 느낄수 있었다. 나는 이번까지 두차례에 걸쳐 평양을 방문하면서 조선이 야말로 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최대로 중시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인민민주주의의 특색이 짙어가고 있는 나라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 국제사회에서 평양을 가리켜 <평안속의 도시>라고 하는것도 실은 사람을 세상에 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조선당과 정부의 인민적인 시책이 수도건설에 빛나게 구현되었기때문이다.

내가 평양을 방문하는 과정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조선당과 정부는 사람들의 건강증진, 문화정서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있는 수도의 수림화, 원림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국가적투자를 아끼지 않고있다.

인민위원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김일성주석과 그이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김정일령도자의 손길아래 최근년간 조선에서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거창한 사업들이 힘있게 벌어져 훌륭한 결실들이 맺어지고있다.

블리바르혁명의 정당성에 대해 강조

베네수엘라공산주의청년 총비서가 최근 쿠바신문 <후엔보 20>에 게재된 회의에서 블리바르혁명의 정당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지금 미국의 제정적지원을 받는 반혁명분자들이 나라의 민족해방위업의 진전을 가로막으려고 책동하고있지만 블리바르혁명은 절대다수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고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수많은 청년들을 망라하고있는 공청조직은 혁명방면에서 큰 역할을 하고있다고 그는 밝혔다.

블리바르혁명의 정당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지금 미국의 제정적지원을 받는 반혁명분자들이 나라의 민족해방위업의 진전을 가로막으려고 책동하고있지만 블리바르혁명은 절대다수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고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수많은 청년들을 망라하고있는 공청조직은 혁명방면에서 큰 역할을 하고있다고 그는 밝혔다.

블리바르혁명의 정당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지금 미국의 제정적지원을 받는 반혁명분자들이 나라의 민족해방위업의 진전을 가로막으려고 책동하고있지만 블리바르혁명은 절대다수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고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수많은 청년들을 망라하고있는 공청조직은 혁명방면에서 큰 역할을 하고있다고 그는 밝혔다.

블리바르혁명의 정당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지금 미국의 제정적지원을 받는 반혁명분자들이 나라의 민족해방위업의 진전을 가로막으려고 책동하고있지만 블리바르혁명은 절대다수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고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수많은 청년들을 망라하고있는 공청조직은 혁명방면에서 큰 역할을 하고있다고 그는 밝혔다.

블리바르혁명의 정당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리현도

여러 나라에서 자연 교해

지진

- 아프가니스탄에서 15일 리히터척도 6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진앙은 힌두쿠쉬산간지역에 있었다. 이에 앞서 14일 파키스탄의 서북부지역에서 리히터척도 5.2의 지진이 일어났다.
- 인도네시아의 동부지역에서 6일 리히터척도 6.1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북부술라웨씨의 고론팔로로부터 7.5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 피스타 리카에서 14일 리히터척도 6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나라의 중부지역에 있었다.
- 오스트랄리아의 맥페리에서 10일 리히터척도 6.3의 지진이 일어났다.
- 진앙은 섬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730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로스야의 씨비리지역에서 12일과 13일 산불이 연이어 일어나 피해를 입었다. 산불발생건수는 32건에 달하며 204ha의 산면이 불타 버렸다. 산불을 끄기 위한 긴급조치가 취해지고있다.

로스야의 씨비리지역에서 12일과 13일 산불이 연이어 일어나 피해를 입었다. 산불발생건수는 32건에 달하며 204ha의 산면이 불타 버렸다. 산불을 끄기 위한 긴급조치가 취해지고있다.

로스야의 씨비리지역에서 12일과 13일 산불이 연이어 일어나 피해를 입었다. 산불발생건수는 32건에 달하며 204ha의 산면이 불타 버렸다. 산불을 끄기 위한 긴급조치가 취해지고있다.

로스야의 씨비리지역에서 12일과 13일 산불이 연이어 일어나 피해를 입었다. 산불발생건수는 32건에 달하며 204ha의 산면이 불타 버렸다. 산불을 끄기 위한 긴급조치가 취해지고있다.

로스야의 씨비리지역에서 12일과 13일 산불이 연이어 일어나 피해를 입었다. 산불발생건수는 32건에 달하며 204ha의 산면이 불타 버렸다. 산불을 끄기 위한 긴급조치가 취해지고있다.

로스야의 씨비리지역에서 12일과 13일 산불이 연이어 일어나 피해를 입었다. 산불발생건수는 32건에 달하며 204ha의 산면이 불타 버렸다. 산불을 끄기 위한 긴급조치가 취해지고있다.

로스야의 씨비리지역에서 12일과 13일 산불이 연이어 일어나 피해를 입었다. 산불발생건수는 32건에 달하며 204ha의 산면이 불타 버렸다. 산불을 끄기 위한 긴급조치가 취해지고있다.

로스야의 씨비리지역에서 12일과 13일 산불이 연이어 일어나 피해를 입었다. 산불발생건수는 32건에 달하며 204ha의 산면이 불타 버렸다. 산불을 끄기 위한 긴급조치가 취해지고있다.

로스야의 씨비리지역에서 12일과 13일 산불이 연이어 일어나 피해를 입었다. 산불발생건수는 32건에 달하며 204ha의 산면이 불타 버렸다. 산불을 끄기 위한 긴급조치가 취해지고있다.

로스야의 씨비리지역에서 12일과 13일 산불이 연이어 일어나 피해를 입었다. 산불발생건수는 32건에 달하며 204ha의 산면이 불타 버렸다. 산불을 끄기 위한 긴급조치가 취해지고있다.

로스야의 씨비리지역에서 12일과 13일 산불이 연이어 일어나 피해를 입었다. 산불발생건수는 32건에 달하며 204ha의 산면이 불타 버렸다. 산불을 끄기 위한 긴급조치가 취해지고있다.

로스야의 씨비리지역에서 12일과 13일 산불이 연이어 일어나 피해를 입었다. 산불발생건수는 32건에 달하며 204ha의 산면이 불타 버렸다. 산불을 끄기 위한 긴급조치가 취해지고있다.

사회경제적발전을 위한 노력

몽골정부가 12일 국가개발은행을 창설하였다. 은행은 하루마중은행, 공업 등 부문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수성 후호바르덴 바르드손은 은행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천연가스지하저장고 건설

인간에서 첫 천연가스지하저장고를 건설하여 15일에 조인하였다. 컴퓨터 위치조정은 이 저장고의 능력은 33억 m³에 달한다. 이것은 세계에서 2번째로 큰것이라고 한다.

산림조성계획

필리핀정부가 13일 새로운 산림조성계획을 발표하였다.

몽골정부가 12일 국가개발은행을 창설하였다. 은행은 하루마중은행, 공업 등 부문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수성 후호바르덴 바르드손은 은행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천연가스지하저장고 건설

인간에서 첫 천연가스지하저장고를 건설하여 15일에 조인하였다. 컴퓨터 위치조정은 이 저장고의 능력은 33억 m³에 달한다. 이것은 세계에서 2번째로 큰것이라고 한다.

산림조성계획

필리핀정부가 13일 새로운 산림조성계획을 발표하였다.

몽골정부가 12일 국가개발은행을 창설하였다. 은행은 하루마중은행, 공업 등 부문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수성 후호바르덴 바르드손은 은행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천연가스지하저장고 건설

인간에서 첫 천연가스지하저장고를 건설하여 15일에 조인하였다. 컴퓨터 위치조정은 이 저장고의 능력은 33억 m³에 달한다. 이것은 세계에서 2번째로 큰것이라고 한다.

산림조성계획

필리핀정부가 13일 새로운 산림조성계획을 발표하였다.

몽골정부가 12일 국가개발은행을 창설하였다. 은행은 하루마중은행, 공업 등 부문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수성 후호바르덴 바르드손은 은행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천연가스지하저장고 건설

인간에서 첫 천연가스지하저장고를 건설하여 15일에 조인하였다. 컴퓨터 위치조정은 이 저장고의 능력은 33억 m³에 달한다. 이것은 세계에서 2번째로 큰것이라고 한다.

산림조성계획

필리핀정부가 13일 새로운 산림조성계획을 발표하였다.

몽골정부가 12일 국가개발은행을 창설하였다. 은행은 하루마중은행, 공업 등 부문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수성 후호바르덴 바르드손은 은행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천연가스지하저장고 건설

인간에서 첫 천연가스지하저장고를 건설하여 15일에 조인하였다. 컴퓨터 위치조정은 이 저장고의 능력은 33억 m³에 달한다. 이것은 세계에서 2번째로 큰것이라고 한다.

산림조성계획

필리핀정부가 13일 새로운 산림조성계획을 발표하였다.

몽골정부가 12일 국가개발은행을 창설하였다. 은행은 하루마중은행, 공업 등 부문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수성 후호바르덴 바르드손은 은행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